

**독**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.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.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.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. <글책임: 편집자> •보낼곳: 우 110-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-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'길을 묻는 이에게' 담당자 앞 •인터넷:www.hanmaum.org 또는 한마음선원 •FAX: (031)470-3116



대행 스님

## 길을 묻는 이에게

제 856호 현대불교

29

2011년 10월 5일(음 9월 9일) 수요일 / 불기 2555년

# 자유인이 되려면 내 자생 중생들부터 조복을 받아야

(지난 호에 이어서)

**질문자2(남):**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.

**큰스님:** 또 하실 게 있어요? 하하하.

**질문자2(남):** 예, 한 가지 더 있습니다. 오늘 전국 각지에서 우리 불자들이 큰스님 천견이 있어 새벽부터 왔습니다. 또 오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. 특히 저희 군은 전방과 후방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오늘 여기 오진 못 오건, 우리 모든 군인들에게 한마음 크게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

**큰스님:** 그렇시다. 하하하. 부처님의 마음은 저 좁쌀 알갱이만한 데다가 넣어서 천 리든 만 리든 가깝고 먼 것도 없이, 빛보다 더 빨리 추진한다면 거기서 두 개도 되고, 세 개도 되고, 천 개도 되고, 만 개도 되고 헤아릴 수 없이 허공을 뒤덮을 수도 있는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묘하고 광대한 거죠. 그러니까 마음법을 꼭 배우시도록 하세요.

**질문자3(남):** 대구 신안에서 왔습니다. 저는 그 동안 큰스님의 은혜를 알게 모르게 많이 받았습시다.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대구 경북지역에 엄청난 기쁨이 들어서 이제 낙동강 수원이 말라들어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 중생들로서는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서, 저희들 힘으로 몇 번 시도해 봤습니다마는 아직 능력이 모자라서 잘 안됩니다. 그래서 오늘 큰스님께서 한마음을 내시어서 낙동강 유역의 모든 생명들을 건져 주십사 하고 간청드립니다.

**큰스님:** 글썄요. 제가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 있을 때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그 지역에는 원한이 마음들로 뽕뽕 뭉쳐진 사연들이 많다고 합니다.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만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. 하여튼 마음들을 잘 내신다면은 거기도 풍족하게 비가 내릴 것입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사람이 생각을 내는 것이 용입니다. 용! 물속에 들어 있는 용이 용이 아니고, 기다란 구렁이가 용이 아니고, 내 마음을 내는 것이 용입니다. 그래요.

**질문자4(여):** 스님을 이렇게 뵈게 돼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어떤 복이 있어서 이렇게 스님을 뵈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10년 전에 처음으로 절이라는 데를 갔고 인연 따라서 죽 절을 다녔습니다. 그리고 금년 2월 말에 제 인연이

는 보살님에게 『한마음요전』을 받았습시다. 그 『한마음요전』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'이런 스님이 지금 현생에 계시구나. 나도 볼 수 있구나.' 하면서 너무나 기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. 옛날에는 법은 법대로 저는 저대로 따로따로였는데 지금은 제 생활 속에서 늘 기쁨이 함께 합니다.

그래서 저의 직장에서도 선원에서 나오는 책들을 다 같이 나누어 보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전담하고 이러한 것이 제일 큰 즐거움인데, 그런데 정작 저의 가까운 인연들에게는 그게 잘 안 통합니다. 저의 자녀들은 서울에 있고 저는 대구에 있다 보니까, 또 아이들을 키울 때는 제가 그런 걸 너무 몰랐고, 그런 모습들을 하나도 못 배웠기 때문에 이걸 전하고 싶었는데 전할 길이 없습니다. 제가 어떻게 한마음을 관해야

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? 더군다나 셋째 딸은 이탈리아로 한두 달 후에 가는 모양입니다. 가기 전에 좀 전하고 싶습니다. 어떡하면 좋을까요?

**큰스님:** 나무로도 비유해서 설명해 주시고요, 밥 먹을 때라도 항상 "엄마 아빠 감사하지?" 이렇게 물어봐서, "감사하다." 하면 "엄마 아빠, 내 주인공! 감사합니다." 하고 밥 먹게 하구요. 그렇게 간단하게 처음부터 잘 가르쳐 놓는다면 바로 자기 마음의 보배를 주는 것이므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으니, 돌에 세워 놔도 살 수 있는 겁니다. 그것이 진짜 재산입니다. 아주.

**질문자4(여):** 그런데 스님, 저랑 같이 동거를 안 하고 있거든요. 아이들은 서울에 있습니다.

**큰스님:** 괜찮아요. 마음으로는 가깝고 멀고 가 없어요. 부처님 법은. 내가 여기 있고 미국에 한

사람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부처님의 마음은 빛보다도 더 빠르기 때문에 잘나에 통할 수 있죠. 이 지구가 한 방으로 돼 있습니다. 한 방! 그러니까 한 방에 전구가 여럿이 있다 하더라도 전구는 다들지언정 전력은 다 똑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.

**질문자4(여):** 저 혼자라도 할까요?

**큰스님:** 예.

**질문자4(여):** 그렇게 말로 얘기하구요?

**큰스님:** 예, 그렇죠.

**질문자4(여):** 네, 스님. 그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**큰스님:** 네, 그렇게 하세요. 그러면 은연중에 전달이 되고 거기도 불이 들어오게끔 돼 있거든요.

**질문자4(여):** 딴 나라로 가도요? 네, 감사합

니다.

**큰스님:** 그리고 책 같은 거, 회보 같은 걸 좀 보내 주세요. 카세트 같은 거.

**질문자5(여):** 큰스님, 이렇게 뵈게 돼서 영광입니다. 저는 공부하면서요, 큰스님 요전이나 그런 걸 통해서 들어 보면 자기 중생을 먼저 제도해야만 된다고 하셨거든요. 그리고 또 자기 중생이 먼저 깨어나야만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.

**큰스님:** 여러분 몸중에 속에 의식들이, 생명들이, 모습들이 천차만별로 있죠? 그런데 그 생명들은 전자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대로 그 부모를 정하게 돼 있거든요.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정해집니다. 그것이 금 차원이라면 바로 금방에 탄생이 될 거고, 또 무쇠 차원이라면 무쇠전에 무쇠로 탄생이 될 거고, 남마라라면 남마라전에서 남마로 탄생이 될 거고 이렇듯이 그렇게 이 세상에 출현을 하게 돼 있죠. 그것은 왜냐하면 악업 선업의 인연들이 바로 내 몸중에 속에 주둔을 하고 있으니까요. 자기 영혼과 더불어 같이 정자 난자를 빌려서 탄생을 시키는 것이 바로 자기 주인공이거든요. 그래서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진화시키고 탄생시켜 온 장본인이 바로 여러분의 주인공 주장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선장이라고도 하고, 주장자라고도 하고, 주인공이라고도 하고, 참부처라고도 하고, 참나라라고도 하고 그렇게 이름은 많죠.

그런데 모든 것은 이 마음을 통해서 그 업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,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말, 하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, 컴퓨터에 넣어 놓은 그 입력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. 그냥! 그러니까 '나오는 대로 다시 되집어 넣으면서', 이것은 내가 주인공에 되놓으라고 항상 하는 소립니다. 되나오는 것을, 잘 나오는 것은 '응, 참 잘 나오게 해서 감사해.' 하고 놓고, 또 잘못 나오는 것은 '너만이 잘 나오게 할 수 있어.' 그리고 거기다가 되놓는 겁니다. 되입력을 하는 거죠. 되입력을 해야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면서 새 입력이 자주 들어가는 거죠. 그래야만이 그 유연성, 엄보성, 인과성, 세균성, 영계성이 다섯 가지가 다 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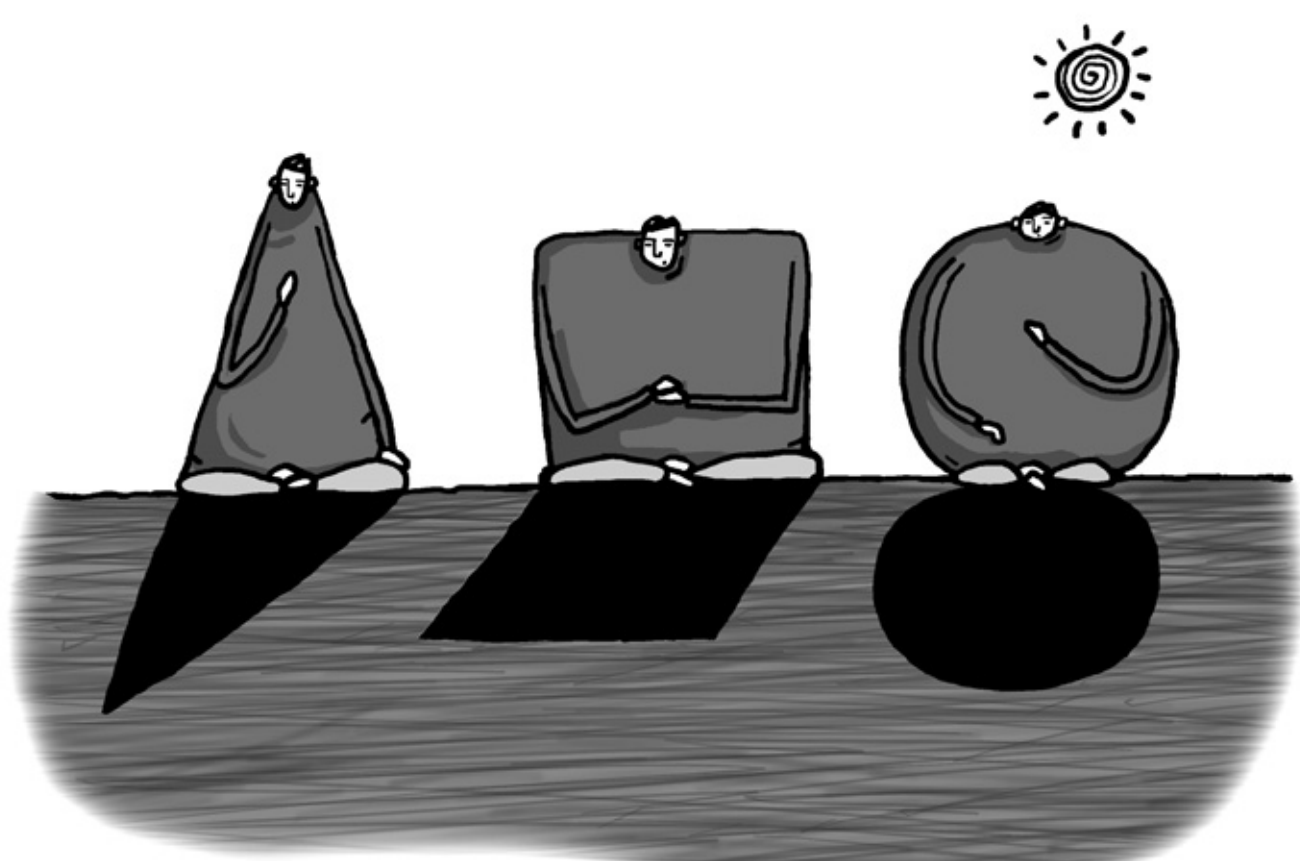


그림 · 최주현

30면으로 계속

##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!

자기 마음의 뿌리,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 
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 
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

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-  
'삶이 곧 불법'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

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.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.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.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,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.

주문은 현불상!  
02)2004-8216  
농협 053-01-269062  
(주)현대불교신문사



- 본문 중에서

현대불교 현불상 www.hyunbulshop.com  
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-21 수송빌딩 2층

#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를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

29면에서 계속

너에게 씌우므로 이 나가 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.

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인이 되려면 내 자생생들부터 바로 조복을 받아라, 항복을 받아라 이 소리죠. 그것도 강제적으로 항복을 받는 건 항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. 인의롭고 유유하고 자비롭고 지혜롭게, 나오는 모든 것을 '너만이 할 수 있어.' 하고 거기가 되나하면 다시 입력이 돼서 그게 없어지지, 그렇지 않으면 없어질 수가 없죠. 그러니까 거기가 되놓으라는 것. 지금 여러분한테 이끌어 주는 관법이 그대로 그겁니다. 그렇게 해안하면, 내 내면의 자생생들부터의 그 의식이 마음의 선장과 더불어 한마음이 되어 배가 지나가는데도 뒤집히지 않듯이, 하하하. 파도가 쳐도, 아무리 뇌성벽력이 쳐도 배는 잔잔히 건너갈 수 있는 거죠. 그와 같이 우리 이 몸뚱이가 그렇게 잔잔하고 편리하고 평등하게 잘 갈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.

아리송합니까? 하하하. 아리송할 거예요. 그러니까 그대로 그렇게 해 보세요. 자기 차원은 자기 가 알게 돼 있습니다. 누가 알려 주는 게 아닙니다. 자기 차원은 자기가 자꾸자꾸 알아갑니다. 그 저 보고 듣고 생활하면서 '아휴, 참 저런 사람 무척 답답하다.' 이럴 때 벌써 자기 차원이 높아진 겁니다. 벌써. 그러니까 그쯤 아시고 열심히, 일을 하다가도 똥을 누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생각하면 생각나는 대로 한 찰나에 그냥 거기 놓으세요. '너만이 할 수 있잖아!' 하고

**질문자5(여):** 네, 감사합니다.

**크스님:** 왜 하고 싶은 말 안 하세요? 하하하...

**질문자5(여):** 스님, 제 앞에 보살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어요. 저한테는 딸은 많고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. 그런데 그 애가 마음공부를, 제 마음 갈아서는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해요. 그래서...

**크스님:** 그거는 부모가 공부를 해서 능히 이끌어 갈 수 있어야만 되니까 때문에, 간단하게 뿌리로 비유하고 나무로 비유해서라도 '너를 끌고 다니는 너를 진짜로 믿어라.' 이렇게 해서 생활하면서 체험을 하게 만들어 준다면 그건 안 놓치죠.

**질문자5(여):** 네, 그렇까요? 그리고 '마음의 불씨' 같은 것도 읽어 보라고 갖다 주거든요. 그러면 그냥 금방 읽고서는 알았다고 그래요. 읽고 알았다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서요.

**크스님:**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.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묵묵히, 알지 못한다 해도 아니 되고 안다 해도 아니 되고, 그런 사이에 그냥 묵묵히 이쪽 전깃줄과 이쪽 전깃줄을 맞대서 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 놓으면 그뿐이에요.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당신 주인공에다 '저 애도 자기 주인공의 밝은 등불을 찾게끔 바로 당신만이 할 수 있어.' 할 때 벌써 개 마음속에 등불이

켜지게끔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대로 하세요. **질문자5(여):** 네, 대단히 감사합니다.

**질문자6(여):** 감사합니다. 저는 산림동에서 왔어요. 몰랐는데요, 친구 하나가 여기 가 보라고 자꾸 그래서 왔는데 저는 아픈지가 한 15년 됐어요. 이 허리서부터 다리까지 이렇게 아프고 저리고 그렇거든요. 속도 답답하고 먹어도 소화 안 되고 그래요. 그래서 큰스님을 만나면 낫는다고 그랬는데, 오늘 뜻밖이네요. 오늘 처음으로 왔는데요, 뜻밖에 첫날 이렇게 만난다고 나보고 아주 운 났다고 그래요, 지금. (대중 웃음) 감사합니다. 첫날 이렇게 큰스님 만났다고 다들 나보고 운 났다고 복 많다고 그래요, 지금요.

**크스님:** 정말 운 났네요. 하하하... 그 관하는 법을 여기 스님네들한테 잘 알아 가지고 가시면요, 차차 낫습니다. 걱정 마세요. 그런 거 걱정 안 해요, 여기서. 자주 오세요. 한 번 한 발자국을 떼었는데, 여기 오려고 생각을 하니까 두 발자국을 댈 수 있겠더라. 또 한 번 올 때에 세 발자국을 댈 수 있겠더라. 이러면 낫는 거죠, 뭐.



다. 알았죠? 속으로 가면을 쓰고 속으로 어떠한 문제를 조작하는 마음, 성내는 마음, 미운 마음, 복수심 이런 게 있으면 그 상대방에서도 그대로 나오니까요,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.

**질문자7(여):** 포항에서 왔습니다. 아까도 처사님께서 말씀드렸지만, 전국적으로 경북지역에 가뭄이 심한데 포항지역이 제일 심한 것 같습니다. 작년에는 경북지역이 돌아가면서 불이 많이 났거든요. 많이 났는데 올해는 진짜 식수가 너무 모자랍니다. 진짜 포항지역에 물이 너무 모자랍니다. 비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또 거북이도 살려줬는데 왜 비가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.

**크스님:** 하하하... 당연한 일을 가지고 공치사 하지 마세요. 공치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안 이루어져요. 그러니까 그 거북이도 귀찮게 한 거지 그 게 살려준 겁니까? 얼른 쉽게 말해서, 너무 아프게 다루서 목 한 부분은 지금 못 쓰게 돼 있어요. 그런 거를 좋은 일 했다고요? 어렵도 없죠. 그러니까 하여튼 마음을 그렇게 내신다면 아마 머지

그 인연에 따라서 은혜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, 그 밑으로 자식들도 그걸 본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자기완성을 자기가 해야 하니까 그런 거죠. 그렇듯이 유전성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.

그런데 내 원주 얘기 하다가 말았죠? 그때에 답십리 보살이라고 남편이 교육청에 다니는 사람 집에 내려가 있었어요. 그런데 내려가 있을 때마다 그냥 그 쌀이나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? 부처님이 안 계셔도 그냥 방석 하나 보고선 자기네 들끼리 거기다 절 해도 그냥 재깍재깍 해결이 됐었거든요. 그땐. 그때는 남을 공부시키려고 하지 않길 공개하고 나누어 주면 이 사람네들이 가가 막힐 거란 말입니다. 또 생각해, 아,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. 그래서 그때 한 보살을 통해

그때 당시에 방에다가 쌀 가마니를 치얹아 놓고 있었을 때인데, 그때도 가만히 생각을 하니가 이걸 공개하고 나누어 주면 이 사람네들이 가가 막힐 거란 말입니다. 또 생각해, 아,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. 그래서 그때 한 보살을 통해

일을 하다가도, 똥을 누다가도, 밥을 먹다가도  
생각하면 생각나는 대로  
한 찰나에 그냥 근본 자리에다가 놓으세요,  
'너만이 할 수 있잖아!' 하고.

않아서 되겠죠. 마음이 하나로 돌아간다면 어디서든지 다 될 수 있어요. 그 도리를 모르겠으면 공부 열심히 하시면 알게 돼요.

옛날에 원주 중앙시장에서 불이 많이 났는데 해마다 불이 나서 수십 명씩 사람이 죽고, 그냥 패가 망신을 하고, 모두 장사를 하다가 다 망해 버리니까 가가 막히고 그런 일들이 해마다 생겼습니다. 그런데 어느 사람이 날더러 하는 소리가 "지금 불이 나 가지고 모두 장사를 하다가 못하고, 애들은 여럿이고 살 수가 없으니 어렵합니까."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불이 안 나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, 그 지역이 군인들이 많이 죽은 그런 지역입니다.

그런데 '이상하다. 사람이 부모자식간인데도 부부기간인데도, 죽으면 왜 마음이 저렇게 다른 게 돼 버릴까.' 이렇게 생각되는 실례가 딱 한 가지 있는데요, 어떤 사람의 부모가 몸이 막 버어 가지고, 흡입이 나 가지고 죽었는데 자식이 또 그래요. 그런 거 보면 부모가 자식을 위한단 말도 못하죠. 하하하... 참 이상스러워요. 하여튼 인연만 떨어졌다 하면 남이 되는 거예요, 이거는. 그런데 남이 되는데 왜 정성스럽게 부모 조상을 믿으라느냐, 그리고 제사를 지내라느냐, 이러지만

서 몇몇 지계꾼을 사서 집마다 밥에 물레 쌀 한 가마니씩 쳐다가 쳐소 앞애다가 둔하고 같이 갖다 놔 줬어요. 밤세도록 갖다 놔 주고 나니까 아이, 닭이 울더라지 않습니까. 그래서 허덕허덕하면서 새벽에 왔어요. 그래, 잘했다고 그랬죠. 그래서 이제 그 방에 있는 쌀은 다 나가고 돈도 다 나가고 그랬지만, 마음이 얼마나 흥분하고 좋은지 몰라요. 지금도 뭘들 다 주고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면 아주 가깝고 좋아요, 저는요. 하하하...

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선가 받은 그것을 고맙게 생각을 해서 그 돈으로다 장사를 조그맣게라도 시작을 해서 잘살게 됐고, 한 사람은 지금 아주 빌당을 짓고 잘살죠. 그런데 한 사람이 그거를 알았어요. 그래서 어느 신문 기자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. 그래서 나한테 와서 그걸 물기에 난 그런 사이 없다고, 탄 데 가보라고 그랬죠. 그랬는데 말입니다, 그게 그 악연들이 전부 없어지고 말입니다. 그 죽은 군인 영혼들이 다 천도가 되니까 해마다 불나던 게 안 나는 거예요.

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 마음 공부라는 게 얼마나 좋은 공부인가. 그러니까 내 집이 주인이 없고 비었으면, 임제(臨濟)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"네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를

너를 좇기로되, 네 주장자가 없다면 내 주장자를 너를 주지 못하나라. 그러되 집이 비었으니까 갖은 영계들이 다 들락날락거리고 네 집마저 망가질 수밖에 없느니라." 이러셨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항상 그 방법의 근원을... 참, 이 내 몸속에 있는 자생생들의 조복만 받는다면 그 조복받은 의식들이 전부 보살로 화해요. 보살로 화해서 천백억화신으로 화해요. 화해서 한 생각을 하면 그 모든 의식들이 화해서, 즉 말하자면 분자로 화해서 입자가 돼 가지고 전부 나가서 원자로 화해요. 그래 가지고 조절을 해요. 그래서 모든 중생을 건질 수 있다, 그런 뜻이죠. 그러니까 깨닫는다 하는 거는 한울의 일체제물의 마음으로서 해인(海印)을 받는 건데, 해인의 도장을 받는 건데 그 도장의 영시를 받을 때 거짓이 있다면 어찌 그 도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나야 다 얻을 수가 있고, 다 얻을 수가 있어야 다 나누어줄 수가 있어요.

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공부하시도록 하시고... 잊으셨어 이런 일이 있었죠. 어느 사람이 참, 3년 4년을 연구를 해 오다가, 아주 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는 연구를 한 겁니다. 그런데 연구를 하는데 고장관념 속에서 그냥 연구를 하니가, 과학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만 연구를 하니가 영 비겁고 나갈 틈이 없더라는 얘기도. 그러니까 연구를 하다가 그냥 포기해 버렸죠. 그러다가 여기 와서 설법을 듣는 순간 '옳지, 그거다.' 하고 터득해서, 이제는 연구가 다 돼서 정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답니다.

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막론해 놓고 여러분의 차원에 따라서, 분야에 따라서 성심성의껏 그걸 믿고 거기에 붙어서, 사업이라든가 뭘 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. 그래서 작은 그릇이라면 나도 작은 그릇이고, 여러분이 큰 그릇이라면 나도 큰 그릇이고, 여러분이 모른다면 나도 모르고, 여러분이 안다면 나도 아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 한자리에서 한마음으로서 우리 앞으로 전진하도록 하십시오.

**사회자:** 크스님의 법문을 모두 마쳤습니다. 저희들은 편안한 자리에서 훌륭한 법문을 들었습니다. 크스님께서는 땀을 많이 흘리시고 법문을 하셨습니다. 그 땀의 보답으로 저희들은 용맹정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

**크스님:** 하하하... 내가 더워서 그래요. 내가 3년 전만 해도 사쓰를 안 입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얇은 거를 겨울에 입어요. 그래서 더워요. 그러니까 어찌됐어요. 하하하...

\*위 법문은 1994년 10월 2일 범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. 한마음선원 홈페이지(www.hanmaum.org, 한마음선원)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Hanmaum Choir Festival

## 한마음 음악제

2011.11.12 Sat 5pm - 13 Sun 3pm, 7pm

세종문화회관 대극장 Sejong Center

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은 「소통과 화합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2011 한마음음악제」를 2011년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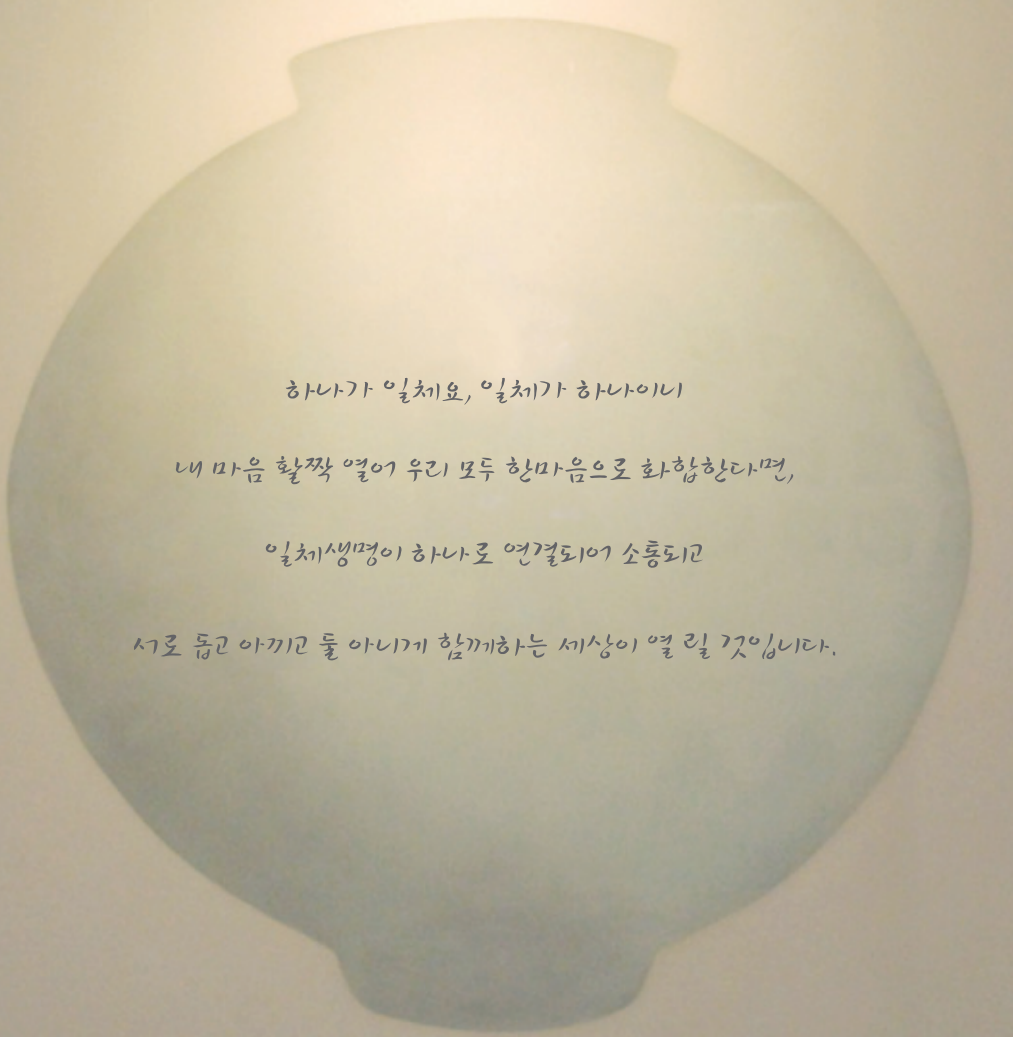
공생살선의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한마음선법합창단이 '너, 나 하나라네', '한마음으로 돌아가네' 등 선법가를 노래하고, 국립국악관현악단 등이 재능기부로 참여합니다.

본 공연의 수익금 전액은 더프라이스의 국제구호사업과 뷰티플마인드의 장애우 문화나눔사업에 기부됩니다.

자세한 문의는 한마음선원 031)470-3100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 
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.

출연 | 황병기, 이춘혜, 류정필, 전제덕  
한마음선법합창단, 국립국악관현악단, 이화첼리,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, 니르바나오케스트라  
주최·주관 |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 
후원 |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,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, 서울특별시

후원금을 모금합니다 농협 351-0290-8461-33 / 국민 214901-04-197245 [예금주 한마음선원]



하나가 일체요, 일체가 하나이니

내 마음 활짝 열어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화합한다면,

일체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소통되고

서로 돕고 아끼고 돌아끼게 할거하는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.

"위의 아래가 따로 만들어지지만, 불기아 속에서 하나가 되는 담향아리, 자신을 텅 비워서 모두를 포용합니다. 너와 나, 남과 북, 나아가 세계를 잇고 싶은 소망을 담았습니다." 작가 김력중